



무더진 손끝·발끝 기록 행진 멈췄다

스피드 빠진 김주찬, 파워가 부족했던 나지완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최하위 전력이라는 평가 속에도 뜨거운 가을을 보내며 눈길을 끌었다. 기대를 넘어선 한 해라고는 하지만 시즌 내내 바닥에 머물렀던 공격 지수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부상과 부진으로 기록 행진을 이어가지 못한 김주찬과 나지완의 한 해가 아쉽다.

김주찬의 두 자릿수 도루 행진은 '9년'에서 멈췄다. 이대형(k)과 함께 치열한 도루왕 싸움을 전개하기도 했던 '대도' 김주찬은 올 시즌 파워를 업그레이드했다. 겨우내 웨이트에 집중하며 몸과 힘을 키운

김주찬은 2010~2014년 작성했던 자신의 최다홈런 9개를 넘어 올 시즌 18호포까지 쏘아올렸다. 이범호(28개), 브렛 필(22개)에 이어 팀내 3위의 기록이다.

그러나 김주찬을 대표했던 무기 스피드가 빠졌다. 통산 11번째 10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라는 기록을 두고 시즌을 시작했지만 김주찬은 개막 첫날부터 우측 장딴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부상일지에 이름을 올렸다. 4월22일에는 좌측 햄스트링, 8월7일에는 우측 햄스트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시즌 중반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올 시즌에도 부상을 피해가지 못하면서 98경기 출전에 그쳤다. 계

힘 부족한 나지완

캠프 막바지 갈비뼈 미세골절

100타석 氣 살리기 무용지물

시즌 내내 빈타... 홈런 7개

7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실패

속된 부상에 김주찬의 질주도 멈췄다. 올 시즌 김주찬은 8차례 베이스를 훔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4년 44개의 도루를 시작으로 이어졌던 두 자릿수 도루 기록도 끊겼다. 김주찬의 부상으로 매서움과

스피드 빠진 김주찬

개막 첫날 장딴지 통증

98경기 출전... 8도루 그쳐

두자릿수 도루 1개 부족

'18호' 개인 최다홈런 위안

스피드가 떨어졌던 KIA의 타선이었다. 나지완의 긴 부진도 KIA의 창을 무디게 만든 요소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고, 캠프 막바지 연습 경기에서는 갈비뼈를 다

쳤다. 팔꿈치 수술 여파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나지완은 처음 수비까지 나간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가 갈비뼈 미세 골절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고 어렵게 출발한 시즌에는 좀처럼 감을 잡지 못했다. 김기태 감독이 100타석까지 약속하면서 나지완 기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던 타격이었다. 중심타선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왔던 4번 타자의 부진에 KIA의 공격도 같이 가라앉고 말았다.

부상과 부진 속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나지완은 힘겹게 봄을 보내고 여름을 지났던 뒤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고, 캠프 막바지 연습 경기에서는 갈비뼈를 다

의 타율을 보이면서 바닥까지 추락했던 시즌 타율을 0.253까지 끌어올렸지만 10홈런에 3개가 부족했다.

부족했던 2015시즌. 이러나저러나 김주찬과 나지완은 KIA 공격의 핵심이자, 해줘야 할 선수들이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던 김주찬은 지난 11일 윤석민 양현종 임준혁 등과 일본 돛도로리 떠나 오는 23일까지 회복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훈련을 하는 나지완은 다음 달 4주간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생각이다. 아쉬움의 시즌을 보낸 두 사람이 따뜻한 봄을 그리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권 전사' 리우 올림픽을 향해

16일 영국서 월드컵 시리즈 3차 대회

이대훈과 차동민(이상 한국가스공사), 김태훈(동아대) 등 '태권 전사'들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다시 코트 위에 선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1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2015 태권도 월드컵 시리즈 3차 대회를 연다. 남녀 4체급씩의 올림픽 체급으로 나눠 기량을 겨루는 이번 그랑프리 시리즈에는 총 56개국에서 230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9월 WTF의 올림픽 랭킹 기준으로 체급별 상위 31명의 선수가 참가 자격을 부여 받았고 개최국 영국은 각 체급에 1명의 선수가 추가로 초청됐다. 한 국가에서는 체급별로 최대 2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참가 선수 중에는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 22명(남자 10, 여자 12명)이나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남자 80kg 초과급 금메달을 수확한 차동민과 런던 올림픽 남자 58kg급 은메달리스트인 이대훈 등이 초대됐다.

이들 외에도 남자부에서는 58kg급의 김태훈과 차태문(한국가스공사), 68kg의 김훈(삼성에스원), 80kg 초과급의 조철호(삼성에스원)가 출전하고 여자부에서는 49kg급의 김소희(한국체대)와 하민아(경희대), 57kg급의 김소희(삼성에스원)와 임금별(전남체고), 67kg의 오혜리(춘천시청), 67kg 초과급의 이인종(서울시청)이 나선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내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체급별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난다. /연합뉴스

추신수 빛바랜 3안타... 텍사스 디비전시리즈 2연패

토론토에 4-8 패... 내일 5차전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처음으로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쳤으나 팀 패배로 웃지 못했다.

추신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4차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치고 두 번 홈을 밟았다. 하지만, 텍사스는 4-8로 패배 홈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4승제) 진출 축배를 드는데 실패했다.

2승 후 2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토론토와 최종 5차전을 치른다.

이날까지 포스트시즌 통산 5경기에 출전한 추신수가 멀티 히트를 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신수는 이번 시리즈에서 타율 0.235(17타수 4안타)를 치는 등 가을 잔치 통산 타율 0.250(20타수 5안타), 홈런 1개, 타점 2개, 5득점을 기록 중이다.

전날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친 추신수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3회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안타를 터뜨렸다. 후속 애드리안 벨트레의 안타 때 3루에 간 그는 다키의 폭투가 나오자 득점했다. 추신수는 2-8이던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다시 프라이스의 빠른 볼을 잡아담겨 2루수 내야 안타를 쳤다. 우익수 앞으로 뻗어가는 타구를 2루수가 겨우 건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4차전 3회에 '추추 트레인' 추신수가 상대 너클볼 선발 투수 R.A. 디키의 폭투에 득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 1루에 송구했지만, 추신수의 발이 더 빨랐다. 그는 프린스 필더의 안타 때 3루에 간 뒤 미치 모어랜드의 땅볼 때 이날의 두 번째 득점을 수확했다. 텍사스 타선이 팽공 묶인 데 반해 전날

승리로 살아난 '거포 군단' 토론토는 1회부터 상대팀 선발 데릭 홀랜드를 두들겼다. 1회 초시 도널드슨(투런)과 크리스 콜라벨로(솔로)의 홈런으로 3점을 뽑은 토론토는 2회에도 케빈 필라의 좌중월 솔로

포로 4-0으로 앞서갔다. 토론토는 3회 2루타 두 방과 야수 선택, 좌전 안타를 묶어 3점을 달아내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야구 심판 양성과정 내달 13일 개강

한국야구위원회(KBO) 등이 주관하는 '제 7기 야구 심판 양성과정'이 11월13일 개강한다.

야구 심판 양성과정은 '일반과정(10주간 총 160시간)'과 '전문과정(5주간 총 64시간)'으로 나뉘며 개설되며, 매주 금·토·일 명지전문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일반과정은 만19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 수강료는 30만원이다. 전문과정은 현재 대한야구협회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심판 중 과정 미수료자, 전국야구연합회 현재 또는 전 소

속 심판 중 단체장 승인을 받은 과정 미수료자가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60명,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mjc.ac.kr)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기타 구비 서류를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전화(02-300-39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